

2020 주일메세지

극단을 향해 질주하는 시대

1. 영적 존재인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닮은 존재를 말한다. 이에 대한 이해가 '자녀'이다. 아버지를 닮은 존재, 아버지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의 정의이다.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재되어 있는 존재를 말한다.

[창세기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위의 말씀은 하나님이 형상인 사람의 존재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영적 존재로서의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를 말한다. 그 하나됨이 바로 '친밀감'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땅에 사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영적 존재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 생명

생명을 중시하며,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될 때, 이 땅은 짐승과 같은 야만의 시대가 된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를 만들었다. 이념, 사상, 돈, 성공, 권력 등, 모든 것이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될 때이다.

역사를 보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의 결과는 심판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을 치유하신 것이다. 생명은 풍성함이다. 기쁨이다. 소망이다. 행복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신(토브) 이유는 사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2) 평안

평안은 안정감을 말한다. 이것은 존재적 안정감을 말한다. 내가 무엇을 해서 만들어낸 안정감이 아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같다. 주어지는 안정감이다. 사람의 정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다. 즉,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다.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새롭게 생긴 신종 바이러스에 모든 것이 '정지'되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이다. 자고하지 않는다. 세계 최고의 산악인 엄홍길씨에게 있어서 '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다. '산'이 허락해야 오를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 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함의 대상이다.

평안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실재적인 인식을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실재적인 인식이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강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깊다. 넓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 줄부처럼 살지 않는다. 권력과 힘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삶의 실재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가장 중요한 가치에 둔다.

2. 육적인 삶

(1) 끝이 없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육신의 생각’이 강해진다. 육신의 생각의 특징은 ‘극단’을 향해 나아간다. 마지막 극단이 ‘사망’인 것이다. 육적인 삶은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말한다. 이런 삶의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하면 극단을 향해 나아간다. 그에 대한 성경의 예는 ‘바벨탑’이다. 하늘까지 쌓아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바벨탑의 목표이다. 그래서 높게 쌓는 것이다.

그런데 하늘 끝이 어디인가? 그 한계를 알지도 못하며, 마치 한계가 있는 것처럼 탑을 쌓는 것이 죄인된 사람의 욕심이다. 이런 죄인된 인간의 삶을 표현하면 ‘어리석다’라는 말이다. 사망이 정해져 있는데 마치 자신은 평생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 성령 없이도 잘 할 수 있다고 굳건히 믿는 마음이 극단을 향해 나아가는 바벨의 마음이다.

(2) 사울 - 극단을 향하여 질주한다.

[사무엘상 28:3, 5-8]

3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5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6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7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 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 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8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 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올려 주시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는 사울을 보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찬 사울의 삶을 보라. 자신이 나라 안에서 쫓아내었던 무당을 찾아간다.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 했다. 그 두려움이 결국 사울을 폭주하게 했다. 사울이 탄 멸망의 폭주 기관차가 질주한다. 엔돌의 무당이 사울에게 두려워 묻는다. "네가 멸절시켰던 무당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느냐? 나를 죽게하는 것이 아니냐?"(삼상 28:9)

하나님을 떠난 ‘사람’, ‘공동체’, ‘민족’, ‘국가’의 모습이 보인다. 한 번 무너진 경계선이 계속 무너진다.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다. 극단을 향해 가는 것이다.

(3) ‘노아의 시대 - 소돔과 고모라 - 계시록의 멸망당할 큰 성 바벨론’ 모두 극단을 향해 나아간다.

극단을 향해 질주하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극을 향해 질주하는 기관차를 제어할 브레이크가 없다.

(4) 제어 할 브레이크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다윗 또한 사울처럼 극을 향해 질주했지만 회개하여 돌이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살 수 있었다. 탕자의 위대함 또한 같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여 천국’에 갈 수 있었다.

(5) 극단을 향해 질주하는 시대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결핍’

3.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누가복음 24:49]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답이다. 성령충만한 존재가 되는 일이다. 즉, 영적존재인 'being'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다.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다.

(1) 능력이 입혀질 때 까지 머물러야 한다.

(2) 기도는 영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길이다.

기도없는 경험 중심의 사역을 두려워 하라. 성령없이 사역하는 것을 두려워 해야 한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3)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라.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라. 십자가는 죄인된 인간의 혼과 육이 파쇄되는 장소이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진짜'가 된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니다. 보여지는 현상이 영적인 일이 아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 영적인 일이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없이 움직이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부인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더 큰 능력과 더 큰 평안이 올 것이다.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자. 내 영이 강건해지는 기도를 하자. 진짜 능력을 입는 기도를 하자. 그리고 기대하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그것만이 이 혼돈의 때를 이길 수 있다.